

도서관  
탐방

#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열린공간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 들어가며

정문을 통과해 먼저 눈에 띈 것은 시원하게 시야를 트여주는 넓은 계단이었다. 계단을 한걸음씩 오르다보니 눈이 부실만큼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서관 전 층이 한눈에 보여 시원스러웠다.

마침 왼쪽에 안내데스크가 있어서 도서관 사무실 위치를 여쭙었더니 우리가 들어온 곳은 2층이고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도중 왼편 창가에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책 읽는 소녀 동상이었다. 어찌나 아름다운 조각상이었는지 사진 한 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다.

1층에 내려가니 커다란 조각상이 로비 중간에 자리잡고 있었고 도서관 직원들의 사무실인 수서과와 일반열람실 및 휴게실 등이 있었다. 휴게실로 가는

복도에는 목록함이 고풍스럽게 자리잡고 있었다. 목록함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약속시간이 다 되었을 즈음 수서과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임혜순 도서관장(영어영문학과 교수) 그리고 왕신식 수서과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임 관장은 올해연임되어 앞으로 도서관을 2년간 더 책임지게 되었다. 도서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



책 읽는 소녀 동상



2층 주 출입구 모습

고 도서관과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애정도 많았다.

우리가 방문한 날 다른 도서관에서도 도서관을 견학하러 와서 많이 분주했지만 여러모로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셨다.

임 관장과 담소를 나눈 후 자리를 옮겨 왕 과장과 도서관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왕 과장은 1989년 한림대에 입사한 후 현 일송기념도서관이 있기까지 초기부터 도서관 건립에 관여했기에 도서관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왕 과장에게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우리 취재팀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

일송기념도서관의 첫인상은 웅장하고 깨끗하고 넉넉하면서도 포근해 마치 외국의 한 도서관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왕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실들은 별로 놀랄 필요가 없었다. 기존에 있었던 도서관은 단독건물도 아닌데다 대학 중심부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학내에서 끊임없이 도서관 설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교수와 도서관 직원들 모두 재단에 도서관 확장에 대한 의견을 자주 거론했다. 그런 와중에 인근 강원중학교 부지를 매입

하여 캠퍼스를 확장하면서 현재의 도서관 부지가 확보된 것이다. 그러면서 일송기념도서관은 지금처럼 정문 바로 앞 최상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무려 공사비만 210억원, 이외에 비품·전산장비까지 합치면 총 24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 2003년 9월 착공해 2005년 10월 완공했으니 약 25개월이 소요되었고, 2006년 3월 10일 지금의 도서관이 문을 열게됐다. 도서관의 명칭은 대학 설립자 故 윤덕선 박사를 기려 “일송기념도서관”으로 명명했다.

## 도서관을 건립하기까지의 노력들

도서관 건립을 위해 2002년 5월 1일 총 10명으로 구성된 건축기획위원회가 구성됐다. 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도서관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사학, 정의, 언론정보, 화학, 물리, 생리의학부 교수 각 1명, 시설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왕 과장이 맡았다. 기획위원회와 함께 5명으로 구성된 건립실무추진위원회도 구성됐는데 도서관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리과장과 시설과장은 시설공사, 비품, 집기에 관해, 대외협력과장은 사인시스템 및 대외홍보를, 전산운영과장은 전산기기를, 수서과장은 도서관 기본 운영 및 업무전반에 대해 각각 업무를 분담했다.

도서관 신축을 위해 학내 다양한 교수진, 교직원, 학생, 도서관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해 함께 연구하고 노력했으며, 도서관 설계도면을 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그렸을 정도로 의욕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도서관에 대한 그들의 애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덕분에 건축설계사무소 직원들과 잦은 만남을 가졌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원하는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을 조별로 나누어 국내·외의 많은 도서관을 벤치마킹한 노력들은 도서관 곳곳에서 드러난다.



2층 신간 잡지 서가



3층 자료실



4층 전자정보실

## 층별 정보

도서관은 정문에서는 1, 2층으로 출입을 하고, 기존의 캠퍼스 즉 의학관과 율곡관에서는 4층으로 다리를 연결해 이용자의 동선을 최단화 시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서관은 건축면적이 1,200평, 연면적이 5,500평으로 100만권의 장서 수용능력을 가진 지하 1층, 지상 5층의 꽤 큰 규모로 개관을 했다.

2층에서 5층까지 배치된 자료열람실은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단일공간을 구성해 동선을 최단화 시킨 동시에 미적인 부분도 많은 고려를 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건물 전체의 사인시스템, 조명, 가구배치, 자연채광, 조경 등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음을 짐작케했다. 재단 이사장이 직접 도서관에 기증했다는 훌륭한 조각상들과 미술품 등이 도서관 곳곳에 놓여져 있어 마치 박물관·미술관에 온 느낌을 준다.

지하 1층은 기계실, 전기실, 보존서고가, 지상 1층은 행정공간 및 일반열람실이, 2층은 기념관, 전시실, 세미나실, 연속간행문실, 참고자료실이, 3층은 사회·자연자료실, 의학자료실, 개인문고, 4층은

전자정보실, 인터넷카페, 시스템실, 교육실, A/V실이, 5층은 인문·예술학자료실이 위치해 있었다.

## 주요시설 및 기능

각층에는 학생들의 공동학습을 위한 그룹스터디룸과 대학원생 및 전문연구자를 위한 연구원 스테디룸, 편하게 앉아 자료를 볼 수 있는 브라우징룸이 마련되어 있고, 휴게실, 복사실, 음료대, 화장실 등도 각층의 동일한 곳에 설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시켰다.

3층에는 사회·자연과학자료실 외에 의학자료실도 있었는데 원래 의학자료실은 독립 건물로 분리해내려다가 현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지금과 같이 도서관 3층에 별도로 마련해두는 정도로 하고 있다. 주제별 자료들에 대해서는 강원도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협약을 맺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기존의 캠퍼스에서 접근가능한 4층에 위치한 교육실에서는 학부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저

널 이용법 및 다양한 검색방법 등을 기초, 중급, 고급 등 수준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또한 A/V(Audio & Visual Room)실에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영상자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터를 설치하고 학과별 영상강의가 가능하도록 화상강의시스템등 첨단장비를 설치했다.

### 직원현황 및 이용현황

도서관은 현재 도서관장 1명, 사서직 8명, 관리직 3명, 계약직 2명이 근무하며 각 출입문에는 경비업체직원이 경비업무를 맡고 있었다. 학기중에는 근로장학생이나 인턴제도를 활용해 도서관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해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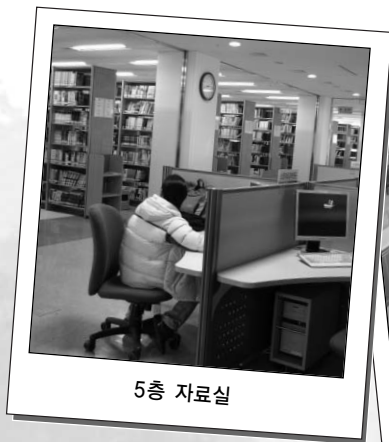
도서관 주 이용자는 학부생(재학생)이 약 6,500명, 대학원생이 560명, 교직원이 1,200명, 외부 재단 및 관련기관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10,000여명에 이른다.

장서수는 50만권이고 1일 평균 대출책수는 676책 정도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2,000명 정도이다.

도서관에서는 교수진에게는 개인별 자료구입비를 별도로 편성해 제공하고 해외문헌복사비도 70%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자료들은 부적합도서가 아닌 이상 신속하게 모두 구입해줌으로써 최대한 이용을 돕고 있다.

새로 구축된 홈페이지에는 여러 부가적인 기능들이 짜임새 있는 메뉴로 구성된 점이 돋보였다. 또한 홈페이지에 도서관 건립 초기단계부터 사진정보를 올려놓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의정보지원 기능도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학부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정리요청 기능은 이용자가 급히 원하는 자료가 있을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도서관은 이용자의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해 이용자에게 제공해준다.

또한 개인학술연구물을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고 등록된 자료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교환하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해 이용자들의 연구활동을 돕고 있다.



5층 자료실



도서관 내부(아트리움)



그룹스터디룸





브라우징룸



도서관 실내 풍경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과 협정 체결

## 다양한 활동

### 도서관 소식지 발행

도서관 건립 후 1년에 두 번 도서관에 관한 소식지를 담아 소식지를 펴낸다. 소식지를 통해 도서관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과 “Window on America” 공동참여 협정 체결

2006년 9월 29일 “Window on America” 서가를 도서관 2층 연속간행물실에 설치했다.

“Window on America”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진열해 원하는 사람들이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주한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는 진열할 수 있는 서가와 다양한 미국관련 주요 자료를 대학도서관에 기증하고, 부족한 내용이나 새롭게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들은 약 20~30종의 미국 유학관련자료, 미국 여행관련 자

료, 미국정부, 지리, 경제, 역사, 문학, 법률 등에 관한 개요서등 이다.

### 개인문고 설치

개인문고는 3천권 이상 기증자가 대상이 되고 도서관에서 기증목록을 미리 받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설치된다.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마련 및 특별열람증 발급

교보문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연 2회(4월, 10월) 유명 작가를 초청해 ‘저자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한다. 작년 9월에는 작가 오정희씨를 초청했는데 교수 및 학생 100여명이 참석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특별열람증을 발급해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자료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 다독자 선발포상

도서관에서는 6개 단과대학별 상위 2명씩 총 12명의 다독자를 선발해 포상을 하여 학내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열람실 내 브라우징 공간

## 일송기념도서관의 목표

일송기념도서관은 앞으로 3가지 목표를 두고 운영해갈 예정이라고 한다.

첫째, 하드웨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계획이다. 완벽한 디지털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합 구축 검색할 수 있는 웹 기반의 검색시스템은 물론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도서관을 만들고자 한다. 점차적으로 지역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해 많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셋째, 글로벌시대에 대비 특성화된 도서관을 만들 예정이다. 한림대학교가 추진하는 특성화 계획과 연계해 도서관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나오면서

대학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도서관... 대학도서관 기능의 첫 번째는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한 만큼 학내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주는 일이다. 그와 동시에 여느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정신적·육체적인 피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은 건립초기부터도 관계자들의 열정적 노력으로 여러 관심을 받았었다. 도서관이 건립되는 과정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기도 했다. 국내 웬만한 대학도서관은 거의 다 가봤을 정도로 많은 도서관을 방문해 검토했으며 해외도서관들도 규모별로 나누어 목표를 둔 내실있는 벤치마킹을 시도했었다. 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재단, 학교관계자, 교수, 학생, 도서관운영자 등이 함께 연구하고 끊임없는 의견 수렴을 해 가장 적합한 형태로 도서관을 건립했다.

새 부지를 확보하면서 새 교문 바로 안쪽에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 행운을 얻게 된 것도 도서관 활성화에 큰 몫을 했으며, 국·내외 도서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알맞게 접목시킨 점도 주목해 볼 만 하다.

여느 도서관보다 여유롭고 넉넉하게 개방된 공간, 휴식공간이 많아 이용자들에게 안식처라는 느낌을 주는 공간 구성은 단연 돋보인다.

일송기념도서관은 규모가 커 적은 인원으로 도서관을 꾸러가기 다소 힘든 점이 있지만 도서관장 이하 직원들은 도서관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 분명 이러한 노력들은 훗날 일송기념도서관이 내·외적으로 완벽하고 훌륭한 도서관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글 : 심효정, 사진 : 심효정, 최인경)